

강진군 마량 만호성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거듭난다

국도비 공모사업 제22호, 전남도 지정유산 경관개선사업 선정
총 22억원 확보 길이 730m 전라병영성과 크기 거의 맞먹어
체계적인 개발로 문화 유산과 상생하는 명소로 재탄생 기대

강진군은 지난달 31일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 일대가 전라남도 지정유산 경관 개선 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만호성지는 강진군 대구면에서 마량면으로 가는 길 끝 자락에 있는 마량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위상과는 다르게 잘 알려지지 않아 마량의 숨은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는 조선시대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연산군 5년(1499)에 쌓은 수군진성으로 종4품의 무관직인 만호가 배치된 조선시대 석성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둘레가 890자, 높이 12척이고 웅성이 2개 치성이 4개라고 기록돼 있다. 이를 현대 수치로 복원하면 길이는 약 730m, 높이는 5.6m 그리고 성내 면적은 4,237㎡이다.

강진군 병영면에 있는 전라병영성의 길이가 1,090m이므로 성곽의 길이만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상당한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조선고적도보 자료



주지 않으면 자연재해와 수목에 의해서 변형이 이뤄진다. 대규모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곽은 옛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연재해에 따른 붕괴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정주여건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 지정은 국·도비 지원으로 유산을 정비하고 홍보 효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으나 반대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구역이 설정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성곽이 특히 심하다. 특성상 성곽 내부는 모두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성곽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 이는 강진군 뿐만 아니라 장흥, 완도, 신안,



함평군, 나비의 문 광장에 ‘하늘보리정원’ 조성

전남 함평군이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앞두고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하늘보리정원’을 조성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함평군은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를 맞아 함평엑스포공원 ‘나비의 문’ 광장 계단에 하늘보리정원을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원 조성은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함평의 자연 경관을 더욱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하늘보리정원은 초록빛 보리밭과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가 어우러진 계단형 정원으로 꾸며지며, 방문객들이 자연과 어우러진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광장 계단을 따라 층층이 어지는 하늘보리밭에는 다양한 포토존과 조형물도 함께 설치돼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요소를 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함평엑스포공원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나비의 문’ 광장에는 사진점포도존, 웨딩포토존, 축제 빅레터, 조각작품 등이 설치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운 추억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나비의 문 광장은 축제장 출입구 3개소 중 주차면적이 가장 넓은 나비주차장(제2주차장)과 연결돼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위치한 함평천의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라며 “앞으로도 엑스포공원을 지속적으로 가꿔 함평의 대표 생태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완도군은 완도해양치유센터-광주 송정역을 경유하는 신규 시외버스 노선을 4월 5일부터 운행한다.

이번 신규 시외버스 노선 운행은 급속고속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이뤄졌다.

버스 노선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 광주 송정역,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하여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 도착하며, 1일 1회 왕복 운행한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는 오전 9시 10분(송정역 경우 09:30)에 출발, 완도공

완도해양치유센터-광주 송정역 시외버스 운행한다

1일 1회 왕복 운행 ‘광주 오전 9시 10분, 완도 오후 5시 10분 출발’

기존에는 수도권 지역의 철도 이용객이 완도해양치유센터에 방문하려면 송정역에서 광주버스터미널로 이동해서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외버스 노선 개설로 완도해양치유센터 접근성이 개선되어 관광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광주(도미남·송정역) ↔ 완도해양치유센터 시외버스 운행			
운행시간	완주종합버스터미널-송정역-완도해양치유센터-완도공용버스터미널	※ 1일 1회 왕복 운행	
완주출발	완주종합버스터미널	09:10	완도해양치유센터 17:10
송정역	송정역	09:30	완도해양치유센터 17:30
완도도착	완도해양치유센터	18:00	완도공용버스터미널 17:40
요금	완주종합버스터미널-완도공용버스터미널	18,900원	완주종합버스터미널-완도공용버스터미널 17,400원
예약방법	현장 발권 및 모바일 예약(티머니·GO)		

여 완도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완도/장선우 기자

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인증이벤트!

세액공제+답례품+진도군 윤림공원 한옥펜션 숙박권까지!

진도군은 4월 한 달 동안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인증행사를 진행한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에게는 진도군 윤림공원 한옥펜션 숙박권을 지급한다.

4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한옥펜션 숙박권은 8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추첨 결과 발표는 5월 2일에 진도군 누리집에 게시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전국 농협을 방문해 10만 원 이상 기부한 후 답례품까지 주문하면 자동응모가 된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후 세액공제와 함께 정성 진도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농수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으시고, 한옥펜션 숙박권 추첨 행운의 기회도 잡으세요”라고 전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062-525-9775

무안군,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 모집

외국인주민과의 소통·정책 참여 확대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지역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주민 군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모니터링단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서비스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단원들은 정기적인 간담회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군은 모니터링단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 복지 정책, 문화 교류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개선

점을 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상은 무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주민으로, 신청은 4월 7일부터 18일까지 무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저출생,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외국인주민은 군민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다”며 “외국인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군정 참여 확대를 통해 내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제공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햇살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면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려낼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평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걸
엔 다 잘될 테니까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은 언제나 우연치

새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고 싶을 때 물어볼 것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내고 있다는 것과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너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불
우어도 보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괜찮
새감처럼
잠시
리우고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가득한 사람,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
엔 다 잘될 테니까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은 언제나 우연치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